불교리더십 캠프 '눈길'… 청년붓다 영근다

파라미타 국제 캠프 및 전국 연합캠프 개최

600명 참석, 전통문화 익혀
세계리더 역할 함께 논의
통도사서 폐회, 불교체험도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무대를 향해 청소년들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화려한 무대의상으로 멋을 부린 청소년들의 얼굴은 상기됐으며 친구를 응원하는 청소년들은 풍선과 핸드폰을 힘차게 흔들었다.

소란스럽던 무대에 인사말을 위해 오른 폰차이 핀야퐁 세계불자연합 회장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갑자기 명상을 권했다. 청소년들은 망설임 없이 눈을 감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꿈과 미래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명상으로 하나 되는 청소년들의 잔치였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는 '마음의 평화로 세상을 따뜻하게' 를 주제로 8월 5일~9일 제20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와 제3회 파라미타 청소년 국제캠프를 개최했다. 울산과 통도사 및 불국사 일대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포교부장 가섭 스님, 김기현 울산시장, 폰차이 핀야퐁 세계불자연합(WAB) 회장이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모인 파라미타 청소년 600여명과 인도, 미얀마, 태국 등 9개 나라에서 참여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8월 5일 파라미타는 울산대에서 특강 및 입재식을 진행했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론 김수영 초청강사가 꿈과 진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파라미타는 제1회 국제청소년 리더십 포럼을 주최했다.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등 9개국에서 참여한 청년 및 청소년과 국내 울산 옥동중학교, 서울 동대부여고 등 학생 200명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 소극장에서 주제 '미래지도자가 가져야할 요건' 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 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가자들은 미리 발표 자료를 구성해 모두 영어로 진행했다.


울산대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청소년 600여명과 각국 해외 고승들이 참석했다. 청소년과 스님들은 리더쉽 배양에 힘을 모았다.

이후 특별 일정에서는 음악놀이페스티발과 청소년 백일장이 열려 심사를 통해 문화부장관상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여했으며 울산 옹기마을, 장생포 고래특구 방문 및 통도사 사찰문화 탐방, 템플스테이도 이뤄졌다. 폐회식은 통도사 설법전에서 진행됐으며 시상식도 아울려 열렸다.

캠프에 참여한 이동규 학생(동대사대부고 영석고 2)은 "파라미타 회원이 아니면 절대 경험 할 수 없는 즐거운 축제"라며 "외국인과 만났을 때 많이 다를 까봐 염려 했는데 친숙하고 즐거운 소통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노아영 학생(동대부여고 2)은 "이번 축제를 위해 파라미타 친구들과 무대에 나갈 댄스를 연습했다"며 "좋은 추억을 준 파라미타에 감사한다"고 했다.

동대부여고 학생들은 음악페스티벌에서 합장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온 릴라 아웃(19)은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학생들은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보인다"며 "그리고 옹기마을을 오전에 돌아봤는데 너무 흥미롭고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통도사와 불국사 등 전통 사찰 방문도 기대가 많이 된다. 미리 인터넷을 통해 한국불교전통에 대해 알아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입재식에서 심산 스님은 "파라미타는 매년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지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해 왔다"며 "특히 국제 캠프도 함께 열리는 특별한 시간이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언어를 넘어 우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파라미타는 연합캠프를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활동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제캠프 까지 함께 열려 교류를 확장한 것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파라미타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심신과 호연지기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연합캠프는 파라미타 대표 행사로 야영캠프, 국제캠프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캠프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됐다. 1996년부터 열려 올해 20주년을 맞았으며 총 27,195명(19회 기준)명이 참여했다.

울산=하성미 기자

"어린이 유해환경 템플스테이로 개선"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8월 3~4일 1박 2일간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 을 주제로 가평 백련사에서 가족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환경오염, 불량식품, 유해매체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느끼고 가족들 간에도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김영실 씨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교과 공부만 강요를 했었는데 템플스테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며 본인과 자녀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과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스카우트 활동, 늘어나는 浩然之氣

몽골 · 부안 · 고성 등지에서 환경 · 통일 · 문화 체험활동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 불교스카우트들의 호연지기를 활약이 눈에 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3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다.

아태 잼버리에는 9명의 한국 불교스카우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잼버리에서 지구촌 35개국 6,500여명의 청소년들과 승마, 유목민 체험, 몽골문화탐방 등 활동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특히 이번 잼버리 기간에는 조계종 불교관이 개설돼 단주 만들기, 태극선 부채꾸미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총 2300여 명이 찾아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밖에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국내에서 다양한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전북 부안에서 개최된 국제 청소년 환경포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불교스카우트를 비롯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에서는 일본 청소년들과 불교스카우트들이 갯벌 생태체험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을 관람하며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또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군포 정각사 초등 불교스카우트들은 북한산에 있는 천년고찰 흥국사에서 열린 여름캠프에 참가해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중등 스카우트 34명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름캠프에 참가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다. 불교스카우트연맹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8박 9일 동안 서울 전쟁기념관을 출발하여 휴전선을 거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행진하는 평화통일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여택진 스카우트불교연맹 사무처장은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스카우트불교연맹은 불자 청소년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생애 마지막에 법음 향기를 전하다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생애 마지막 순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슬픔을 함께하는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제10기 염불자원봉사단 양성 교육' 을 실시한다.

교육은 8월 23일~9월 29일 매주 수 ·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염불 염송 및 목탁 집전 교육 △사례교육 △조가연습 △상가예절 등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관 스님과 우리선원명상센터장 도영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는다.

수료생들은 요일별로 팀을 이뤄 서울 · 경기 내 상을 당한 불자가정의 상가(喪家)를 방문, 염불과 조가 등을 통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종교의 정서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불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며 힘든 순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9년부터 불교의 상 ·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염불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하면 된다. (02)6334-221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